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9. 23

주간 달러/원 동향(9/16~9/2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추석 연휴로 휴장
- 후반, 9월 FOMC에서의 빅컷 결정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의 선반영과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발언에 대한 매파적 평가에 소폭 하락에 그침. 이어 주 후반, 예상에 부합한 BOJ 금리동결 결정으로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1,320원대 후반에서 강보합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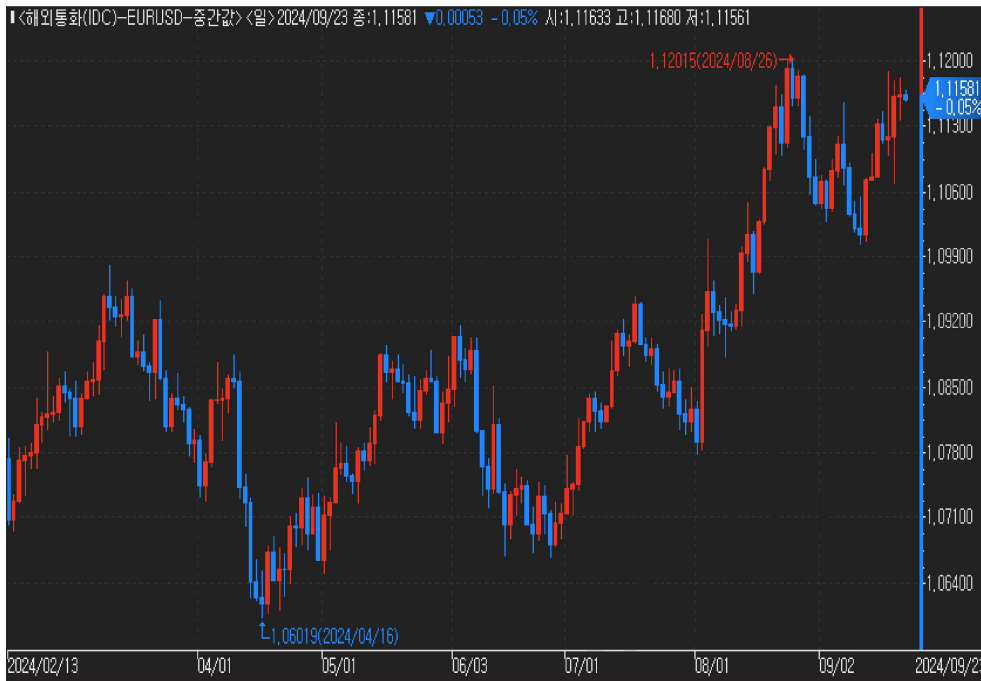
달러/원 전망

- 일본 BOJ의 금리동결 결정 속에 총재의 추가 긴축에 대한 신중한 태도에 따른 엔화 약세 등이 9월 FOMC의 빅컷 영향을 다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여기에 뉴욕 증시의 위험선호 심리 부진 및 대내적 탄탄한 결제수요 유입 등이 원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연준 월러 이사의 도비시 언급에 따른 달러 강제 제한 요인과 월말 관련 수출 달러 매도 확대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29.0	1,336.7	1,326.0	1,329.1	+0.1

예상거래범위
1,325원 ~ 1,340원

엔·유로화 동향 (9/16~9/20)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이 빅컷으로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로 출발. 이어 독일 9월 경기전망지수가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큰 폭 하회하자 경기 개선 기대가 크게 약화된 측면이 유로화 약세를 견인
- 중반, 9월 FOMC에서의 50bp 인하 결정에도 파월 의장 발언이 호기시하게 인식되며 달러 약세가 제한됨에 따라 유로화는 강보합
- 후반, BOE 금리동결로 인한 파운드화 강세에 달러지수가 하락하면서 유로화는 강세. 이어 주 후반, 추가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에 달러 대비 추가 강세를 보이며 1.11달러 선에서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전직 연준 관계자들 50bp 인하 지지 발언에 미 국채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엔화는 강세로 출발. 이어 미 소매판매 호조와 산업생산 증가세 전환에 미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측면을 반영하며 약세로 전환
- 중반, 연준 빅컷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추가 약세를 보임
- 후반, BOJ 금정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관망심리가 유입되는 가운데 약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예상에 부합한 BOJ 금리동결 결정과 우에다 총재의 도비시한 발언에 큰 폭 약세 보이며 143엔대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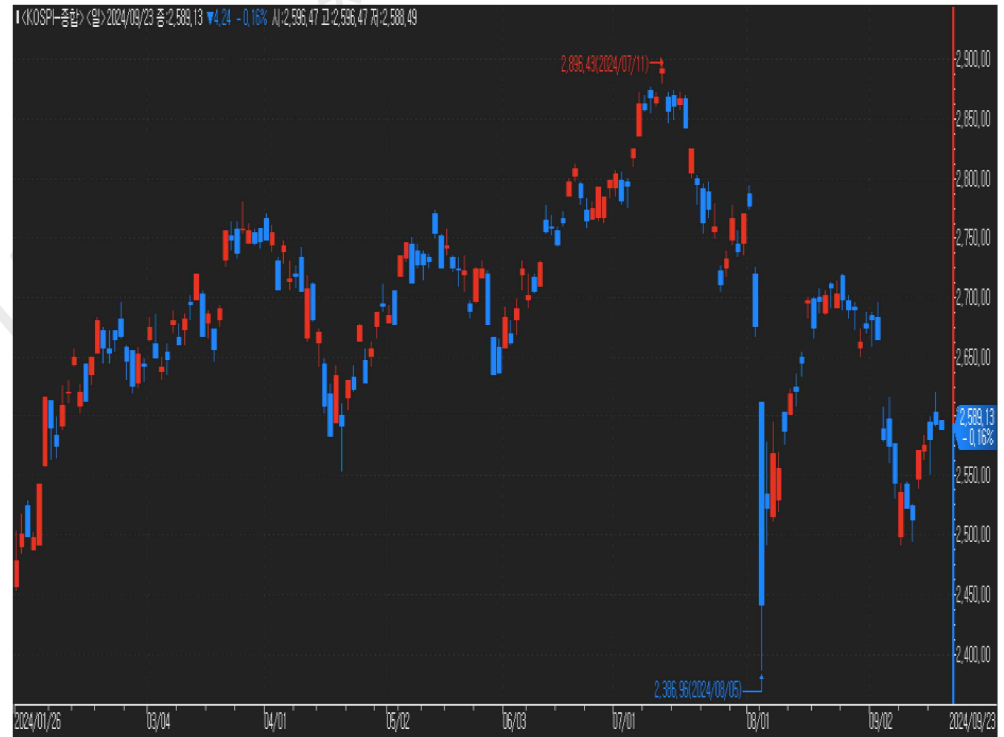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076	1.1189	1.1068	1.1163	+0.0087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0.8	144.5	139.6	143.9	+3.1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19~9/2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주간 증시 동향

-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있었던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음에도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공격적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 회견 내용이 매파적으로 인식되자 뉴욕시장의 미 국채금리 상승 및 이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하며 상승 출발. 이어 주 후반 BOJ 금리 동결 결정 소식과 이후 우에다 총재의 비둘기 기조 등에도 국내 국고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10년 국채선물 대규모 매도 영향 등으로 장기 구간 금리 상승 속에 단기 구간에 대해서는 선호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권 혼조세 나타내며 마감

- 9월 FOMC에서 빅컷 단행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뉴욕 금융시장 주요 지수 하락 속에 국내 반도체 업종 급락 등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되며 소폭 강보합 출발. 이어 주 후반, 연준의 빅컷 효과가 하루 지나 금융시장에 온풍을 불어넣는 형국 속에 반도체 업종들이 전일 급락 분을 일부 회복하는 국면 속에 기관들의 순매수 영향 등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며 마감